

세계 유일의 '심장대사증후군학회' 출범

고광곤 회장 “주도적인 세계적 학회로 거듭날 것”

심장대사증후군학회(회장 고광곤)가 세계 유일하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식 출범했다.

심장대사증후군학회는 지난 2014년 대한심장학회 소속 심장대사증후군연구회로 시작했으며, 5년 동안 6회의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제1회 국제학술대회 APCMS(Asia-Pacific CardioMetabolic Syndrome)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 1월 1일 정식학회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2월 23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창립총회와 함께 22일~23일 양일에 걸쳐





▲ 고광곤 회장

심장대사증후군학회 창립 국제학술대회(APCMS)를 성황리에 마쳤다.

심장대사증후군학회 고광곤 회장은 2월 22일 그랜드힐튼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심장학회에 소속된 심장대사증후군연구회는 5년 동안 많은 활동을 했다.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면서 그러나 “연구회는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세계 유일의 심장대사증후군학회로 아시아 태평양을 넘어 유럽, 미국의 연구자와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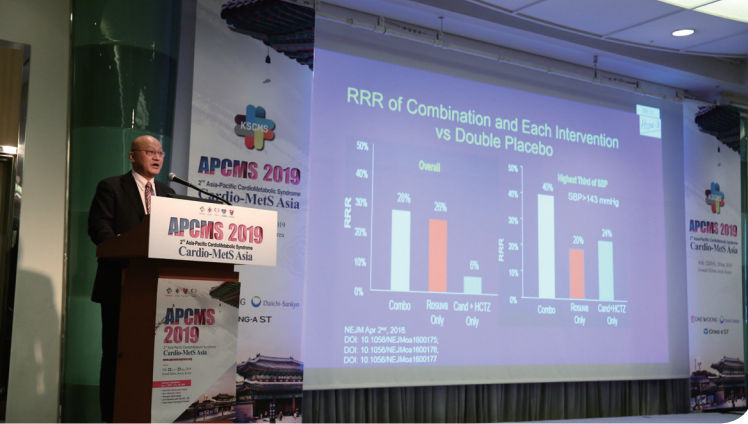
고광곤 회장은 “올해 정식 학회로서 창립을 하면서 오늘(22일) 창립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국제학술대회 초록은 지난해 2배 수준인 14개국 225편(국내 62편, 국제 163편)이 접수됐으며 다양한 해외연구진들의 참여로 국제학술대회로 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 명성 높이기 위한 다각적 방향 고민

심장대사증후군학회는 학회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광곤 회장은 “내년에는 유럽과 미국 학회와 같이 공동세션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다”며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유럽에서도 주도적으로 넓혀나갈 수 있도록 발전하는 학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학회에 따르면 내년에 개최될 3회 국제학술대회는 더욱 다양해진 해외연구진들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해외세션과 일본과 중국 등 해외공동세션도 진행된다. 특히 내년에는 국제혈관학회와 공동세션 및 상호 교류를 위한 MOU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연구 및 연구 성과 공유를 위한 공식 저널 론칭도 계획하고 있다.

심장대사증후군학회, 다양한 연구 시도



심장대사증후군학회는 제2 회 APCMS를 통해 그 동안 진행된 여러 논점과 대사증후군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학회는 커피 섭취와 대사증후군의 영향, 비타민 C 보조제가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지역적 차이와 생활습관 요인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 타 연구와 다른 결론을 도출한 연구도 있었다.

아주의대 박진선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을 토대로 커피 소비와 대사 증후군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의 타 연구와는 다른 결론을 도출했다. 커피 소비가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낮추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놨다.

기존 타 연구에 따르면 커피의 소비가 어느 정도는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박진선 교수 연구에 따르면 커피 섭취와

대사증후군 위험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만 확인됐다. 남성의 경우, 프림을 첨가하거나 무첨가 커피 섭취자에서는 일 2회 이상 커피 섭취가 대사증후군 발생의 위험도가 높았다.

여성의 경우는 일 1회 미만의 커피 섭취는 첨가물 유무와 상관없이 대사증후군 발생의 위험도가 높았으며, 일 1회 이상 섭취할 경우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물론 이번 연구는 단면적 연구로서 향후 코호트 연구를 통해 연구의 신빙성을 높일 계획이다.

학회측은 연구 배경에 대해 “커피 소비가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지만 국내 커피 소비 형태와 특징을 고려했을 때 커피 소비와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연관성이 기존 연구와 다른 특징이 있을 가능성에 의문을 두고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인에서 커피 소비와 대사증후군 유병률

과의 연관성을 재확인하고자 했다. 단면적 연구에 불과하고, 전향적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커피와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다른 학회가 아직 없다. 우리 학회에서 처음 연구를 진행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향후 코호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고대 안암병원 주형준 교수는 비타민 C 보조제가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단면연구의 결과 비타민 C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여자, 고학력 군이었으며 비교적 건강한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코호트 연구를 통한 추적 연구에서 비타민 C보조제 복용이 대사증후군 발생 및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큰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지역적 차이와 생활습관 요

인분석에 대한 연구는 연세원주의대 심장내과 김장영 교수가 진행했다.

연구결과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의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요소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았다.

도시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1%, 농촌은 28%로 7%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유병률 차이를 보면 남성이 27%, 여성이 17%로 나타났다.

남성중에서도 도시거주자 26%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남성이 31%로 더 높았다.

여성의 경우 역시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 16% 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이 23%로 높게 집계됐다.

이소영 기자/MP저널

APCMS 2019

2nd Asia-Pacific CardioMetabolic Syndrome Cardio-MetS Asia

DATE Feb. 22(Fri) - 23(Sat), 2019 V Hilton, Seoul, Korea

Country Attendee

Albert Youngwoo Jang
Chan Joo Lee
Chan Seok Park
Chang Hoon Lee
Dong Oh Kang
Dong-Hyuk Cho
Eun Ah Jo
Garam Jo
Hack-Lyoun Kim
Han Saem Jeong
Hyun-Jung Lee
Il Suk Sohn
J-Rang Lim
Ji Hye Huh
Jin-Sun Park
Jong-Shin Woo
Jong-Chan Yoon
Jong-Ho Kim
Jongwook Yu
Juhee Lee
Jun-Won Chung
Kwang Kon Koh
Kyoung Im Cho
Min-Jeong Shin
Mi-Seung Shin
Pyung Chun Oh
Sae Young Jae
Sang-Ho Jo
Sang-Hyun Jhm
Sangwon Yoon
Seong-Mi Park
Seung Hwan Han
Soo Lim
Soo Yong Lee
So-Young Kwak
Tae-Hwa Go
Weon Kim
Won Young Jang

Attendee
Ksha Rattu
Ant Agrawal
Ahmad Tantray
Kumar Meena
Jitil
Kunt Hassan

